

공동서신(公同書信)

1. 서론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1,2,3서, 유다서의 7서신은 일반적으로 ‘공동서신’(Catholic Epistles) 또는 ‘일반서신’(General Epistles)이라 불리운다. ‘공동서신’이란 명칭은 일찍이 주후 197년경 아폴로니우스(Appollonius of Rome, c. 197)가 몬타니우스 이단자 데미슨(Themison)을 공격하면서 사도요한의 “공동서신”(가톨릭 편지)을 모방한다고 말할 때에 요한1서만을 ‘공동서신’이라 부르면서 유래하며, 그후 오리겐(Origen, 184-253)이 요한1서 외에 베드로전서, 유다서 및 바나바 서신을 ‘공동서신’이라 불렀고, 유세비우스(Eusebius, 263-340)에 이르러 현재의 일곱서신을 공동서신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 서신들은 비(非) 바울적 사도서신이며, 그들 저작의 일반적 서신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사도적 서신’(Apostolic Epistles)이라고도 불리운다. 또한 수신자들이 한 교회에 한하지 않고 일반적인 모든 신자들로 되어 있다. 즉 내용이 회람적인 성격을 가졌다. 그 내용은 주로 그리스도교의 정통신앙을 논하는 공동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일반적인, 교리적인 것이다. 그리하여 ‘정경적 서신’(Canonic Epistles)이라고도 불리운다.

이들 문서들은 바울의 편지들과 같이 어느 특정한 교회나 개인이 아닌 “전체교회”, “공동교회” 혹은 “교회일반”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한 데서 그와 같은 명칭이 붙여졌다. 이 명칭은 그 후 라오디게아회의, 크리소스톰, 예루살렘의 씨릴, 에피라니우스, 아다나시우스, 알렉산드리아 사본(A), 나지안젠의 그레고리(Gregory of Nazianzen)등에 의해 이 일곱서신에 대해 계속 사용되었다. 근자에 와서는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란 용어를 즐겨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세 개의 요한 서신(요한1,2,3서)은 특정한 수신인을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요한문서”(요한복음과 세 요한서신)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 책들은 정경사상 대체로 의심을 받아오다가 마침내 정경으로 공인되었다.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2서와 3서, 유다서의 다섯책들은 히브리서, 계시록과 함께 소위 7의서(疑書)에 속하며, 야고보서는 무라토리 단편(canon Muratori)¹⁾에 의해, 베드로후서, 요한2,3서, 유다서는 동방교회에 의해 각각 그 정경성을 의심받았다. 그러나 주후 397년 제3차 카르타고회의에서 마침내 공식적으로 정경으로 ‘공인’되었다.²⁾

공동서신은 히브리서를 제외하고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따랐다. 저자의 문제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 두가지가 개재되어 있다. 사도계승의 의의와 정경화의 필요성의 문제가 그것이다.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 편지가 아니라 서신이 된다. 사도의 전승을 잇기 위해서는 원저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익명을 써야만 했다. 정경화의 문제는 베드로전서와 요한1서는 성경이 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나머지 편지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
- 1) “무라토리 단편”이란 1740년에 이탈리아의 로마 가톨릭 역사가 Ludovico Antonio Muratorio가 발견한 라틴어 사본의 단편을 말한다. 그 안에 성경목록의 일부가 전해 지고 있다. 과거에는 2세기말경 로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했으나 요즈음에는 4세기초에 동방에서 작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 2) 정경이란 성경이외의 다른 책들 특히 가경 외경들과 구별하여 부를 때 사용하는 명칭이다. 가경(假經), 위경(僞經)이란 어떤 책이 스스로 주장하는 저자와 그 책의 실제저자가 다른 경우에 사용한다. 외경은 그 권위에 있어서 한 때 정경인 것으로 여겨졌으나 아닌 것으로 밝혀져 정경밖으로 내쳐진 책들을 말한다. 외경이 꼭 가경은 아니다. 가경과 외경은 전혀 서로 범주가 다른 개념이다. 외경은 정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지는 않지만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 훌륭한 경건서적정도로 보면 될 것이다.

공동서신의 문학적 형태를 보면 바울의 편지들이 영향을 끼친 초대교회의 문서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실제로 공동서신 중에는 베드로전서만 편지형태를 가지고 있다. 인사와 서두(벧전 1:1-2), 감사(벧전 1:3-9), 본문에 교리와 권면이 나오고(벧전 1:10-5:11), 결론에 이 편지를 쓴 서사와 인사가 나온다(벧전 5:12-14). 권면에서 사도와 모범을 예증한다.

공동서신 저자들의 최대 과제는 이미 세워진 교회를 어떻게 보존하는가였다. 이를 위하여 사도들의 교훈과 전승을 계승할 뿐 아니라 여러 잡다한 전승을 흡수하여 “신생교회의 보편성을 반영한다” 그리하여 사도의 전승을 계승하고 정경화의 징검다리가 되고 교회의 결정권을 가진 직분자들, 종과 장로들로 교회의 조직을 제도화하고, 사회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여 교회의 유지와 발전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공동서신은 오늘날 세속속에 존재하는 교회가 주님오실때까지 그의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의 본질과 사회와의 관계, 성도의 신앙과 생활을 가르치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2. 야고보서

가. 저자

1) 외증(外證)

본 서신을 야고보의 저작이라고 언급한 최초의 기독교 저술가는 오리겐(Origen)이었다. 유세비우스는 “야고보서가 주님의 형제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것은 세상에 알려진 사실이나 혹자는 그것을 ‘위조된 것’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것을 볼 때 당시의 야고보서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전부 권위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유세비우스는 관례적으로 야고보의 것으로 인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기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들이 나머지 것들과 함께 대부분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유세비우스는 그의 『교회사』 (*Historia Ecclesiastica*)에서 신약의 책들을 다음과 같이 세 항목으로 분류한다. 이 항목들은 정경성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저자권으로 나눈 것이다. 야고보서는 그 중에 *Antilegomena*에 포함된다.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야고보서는 저자가 정말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책이라 보았다. 그래서 그는 야고보서를 두 번째 항목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야고보서가 정경으로서의 권위를 의심받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는 야고보서를 정경인 것처럼 다루었던 것이다.

신약	<i>Homologoumena</i>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책)
	<i>Antilegomena</i>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책) "seven letters which are styled canonical"
잘 알려져있으나 성경으로 인정되지 않는 책	<i>Notha</i> (서자, 의붓 자식들)

2) 전통적 견해

신약성경의 야고보는 7명이 있다. ① 세베대의 아들(막 1:19; 행 12:2) ② 알패오의 아들(마 10:3) ③ 작은 야고보(막 15:40) ④ 유다의 아버지(눅 6:16; 행 1:13) ⑤ 예수님의 형제(막 6:3; 갈 1:19) ⑥ 야고보서의 저자(약 1:1) ⑦ 유다의 형제(유 1:1) 이들 중 ⑤와⑦은 동일 인물이며, ②와③ 그리고 ④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려진 것이 없다.

가) 저자 자신의 신분증명

- (1)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AD 44년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행 12:2)는 사실 때문에 교회의 전통은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
- (2) 보편적인 지지는 예루사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가리킨다. 주님의 형제는 성경의 기록에 근거하는 한 초대교회 역사에서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명성과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다.

나) 저자의 유대적 배경

- (1) 저자의 사고와 정신이 상당량 구약성경에서 유래되었다(직접인용 1:11; 2:8, 11, 23; 4:6 간접인용 1:10; 2:21, 23, 25; 3:9; 4:6; 5:2; 11, 17, 18). 기도와 인내에 대한 예를 필요로 할 때 구약의 인물을 찾아 낸다. 윤리적인 문제에 접근할 때와 엄중한 경고를 할 때 구약의 예언서의 병행구를 찾아내는 등 기독교의 예언자 같이 보인다.
- (2) 히브리관용어의 흔적이 많다. 히브리어 유사모음 연접선호현상, 히브리 구어의 풍부함의 암시적 표현, 예언적 문체등이 여러군데 나타난다. 이것은 저자의 정신이 유대적 사고방식과 표현방식에 아주 친숙해져있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 (3) “흠어져 있는 유대인”, “만군의 주 (5:4)”, 맹세에 대한 유대적 양식언급, 유대 법 강조(2:9, 11; 4:11, 12), 유대신앙의 주요법칙인 하나님의 유일성(2:19) 강조

다) 야고보서와 사도행전사이의 유사성

사도행전 15장의 야고보의 설교에 나타난 헬라어 문체와 본 서신의 헬라어 문체 사이의 유사성에 의해서 지지를 얻는다. ‘문안’(카이레인 *χαίρειν*)이라는 단어는 야고보서 1:1과 사도행전 15:23, 18:26에서만 사용된다.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은 사도행전 15:17을 생각나게 한다. ‘형제들’(ἀδελφοί)에게 들으라고 하는 훈계는 야고보서 2:5에서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5:13에서도 발견된다. 이러한 병행구절들은 사도행전 가운데 야고보에 속하는 불과 몇절 내에 들어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런 특성이 언어의 우연한 일치로는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자료들이 즉시 각 구절들의 배후에 같은 생각이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주장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모든 학자들이 사도행전의 설교들에 대해 문자적인 정확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사도행전의 증거는 저자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확증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예수의 가르침과의 유사성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의 가르침에 정통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병행구절을 기계적으로 복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선포하신 관점을 실재적으로 잘 이해하고 기록했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한 언어적 유사성 그 이상의 어떤 것이며, 언어적 유사성이란 그 자체가 본래 결론이 안나는 것임을 입증한다.

마) 야고보에 대한 신약성경의 설명과의 일치

야고보는 마태복음 13:55에 예수님의 형제로 소개되고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후까지 신자가 되지는 않았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요 7:5) 야고보는 추측컨대 예수를 대단히 존경했지만 주님의 방법에 동의할 수 없었고 아직 주님의 사명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의 변화를 일으킨 사건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리스도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전 15:7). 바울은 후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교회의 기둥같이 여긴다고 언급하였다(갈 2:9). 사도행전에서의 야고보의 권위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인사말에서 보여주는 권위와 분위기가 완전히 일치한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기사에서도 교회의 장로들중 오직 야고보의 이름만이 거론되었고 바울은 유대의 서원을 준수하라는 야고보의 요청에 동의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야고보에 관한 중요한 특징이 되었고 기독교 전통안에서 공교하게 다듬어지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율법에 헌신적이었으며 유대의 의식적 요구도 지속시키는데 열심이었다. 이에 상응하여 그의 견해도 제한적이었다. 그는 아직 복음의 완전한 자유에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그는 변환기에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기독교의 주요 교리가 언급되지 않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야고보가 유대계 기독교인들에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편지를 썼다는 것 또한 놀라운 일이 아니다.

바) 공동체 내의 제여건

야고보서 5:1-6에 묘사된 예루살렘 사회는 포위공격을 받기전 기간과 잘 일치한다. 부자가 빈자를 가림주구(苛斂誅求)하고 그들의 피땀의 결과로 사치스럽게 살았다는 것은 분명히 사회악이었다. 이것은 저자가 주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가설과도 잘 조화되는 것이다. 공동체내의 사회환경외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자주 논란이 되고 있는 내부여건들은 오나

전혀 성숙되기전인 공동체사회 역사의 초기단계에 해당된다고보아 본 서신의 이른연대를 주장하기도 한다. 초기 유대적 기원의 방향에서 야고보를 헌신적 유대계 기독교인으로 보지 않는 두가지 주장이 있다. 하나는 ‘싸움과 다툼’(4:1)이라는 표현은 예루살렘 포위공격 이전의 치열한 투쟁의 참상과 관련이 깊어 보이고 또 하나의 확실한 서신의 유대적 배경은 상전과 종에 대한 암시가 전혀가 없다는 것과 우상숭배를 탄핵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에 의해 증거된다.

3) 전통적 견해에 대한 반증(反證)

가) 헬라어가 너무 우수하다

예수님의 형제와 같은 소박한 유대인이 쓰기에 너무 훌륭한 헬라어를 구사하고 있다. 야고서는 히브리어 성경이 아닌 칠십인경을 자주 인용하고 있다. 번역문으로 보기 힘든 다양한 헬라어 문체들이 사용되었다.

vs. 야고보의 위치는 예루살렘교회의 지도자였다. 여러지방에서 여행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해야 했으며 생생한 예화, 수사의문 같은 수사학적 문체를 사용하는데 어느정도 숙달되었을 것이고 헬라어 필기자를 고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저자 자신의 모호한 주장 vs. 바울은 예수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아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후 5:16)고 인식하였는바 주님의 친척들도 주님과 가 족적 유대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야고보는 자신을 ‘종’이라 언급한다

주님의 생애에 대한 언급이 없다 vs. 야고보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다(고전 15:7) 그러나 도덕적 훈계가 목적인 윤리적 서신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다

나) 야고보서의 율법개념과 야고보의 개념이 다르다

다) 신약의 다른 책들과 저자의 관계

라) 외증은 전승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4) 서신의 기원에 관한 선택적 제이론

가) 본 서신은 남의 이름(Pseudonymous, 필명(筆名))으로 쓴글이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유대교의 랍비나 헬라과 유대교 교사들과 같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도나 선지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과 전통을 가진 사람이었다³⁾. 그는 이론이나 신학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진리를 어떻게 행하느냐는 실천의 문제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다. 저자는 유대교의 단절을 강조하는 바울보다 구약과의 계속성을 강조하는 주의 동생 야고보를 그의 사표(Mentor)로 여기고 야고보서를 썼다.

3) 야고보서에 나오는 교회의 직분을 보면 야고보는 자신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므로 사도시대는 지나갔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3:1)고 교회는 선생들이 가르치고 지도하는 때를 말한다. “너희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5:14)라고 교회는 장로들이 교인들을 돌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린도전서 12:28-29을 보면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교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능력과 병고치는 자와 그 다음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봉사와 행정의 직분이 나온다. 사도행전 3:1의 안디옥 교회에도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에베소서 4:11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라고 교회에는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카리스마틱한 “사도와 선지자”직분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이 처음부터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후 2세기에 쓰여진 “12사도의 교훈집”을 보면 사도시대가 지난뒤 선지자와 교사가 순회하면서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오현, 『공동서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160.

나) 본 서신은 익명(anonymous)으로 된 작품이었으나 후에 야고보에게 귀속되었다

다) 본 서신은 어떤 동명의 다른 ‘야고보’에 의해 기록되었다

라) 본 서신은 원래 유대문서였다. 기독교와는 연관이 없는 유대교 문서였으나 기독교 편집자가 기독교 문서로 개조시켰다. 야고보서는 원래 창세기 49장의 야고보의 12아들을 위한 축복이나, 필로나, 유대교의 랍비나 12족장의 유언집 같이 족장들의 성격과 행동방식에 따른 덕과 악의 목록으로 훈계하고 운명을 예언한 유대교문서로 “주” 칭호는 항상 하나님만을 말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닌데, 편집자가 기독교 문서로 개작할 때 문맥과 상관없이 1:1과 2:1에서만 “그리스도”라는 말을 삽입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5:11을 억지로 해석하지 않으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한다. 이 학설은 거의 지지하는 학자가 없지만 마르스센(W. Marxsen)은 야고보서가 쓰여지기 이전에 원래 유대교의 원자료가 있었다고 주장함으로 이 학설을 계승한다.

마) 본 서신은 어떤 진품자료와 혼합 편집한 것이다. 데이비즈(Peter Davids)는 40년과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기전에 야고보서 쓴 원문에다가 55-65년 사이에 수정을 하고 75-80년 사이에 어느 편집자가 어늘의 형태로 고쳤다고 주장한다.

5) 결론

전승이란 잘못되었다고 증명되기까지 고수될 권리가 있다는 원리에 입각하여 전승적 견해 쪽을 택하는 것이 더 좋다.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논증 가운데 어떤 것은 강력하지만 그 견해들 중 어느것도 전승보다 신빙성 있는 것은 없다. 즉, 야고보저작권이 가지는 경쟁력은 높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나. 수신자

1) 디아스포라(διασπορά, 1:1)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는 단정적으로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 해석은 야고보 저작권과 잘 어울려 팔레스타인 바깥에 사는 유대인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유대의 특수한 용례와 완전히 일치하여 수신자들을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신자라고 본다. 흐로스헤이더(Grosheide)는 이 용어가 ‘새로운 이스라엘, 즉 기독교’를 말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일 것이다. 이방인들은 야고보서가 자신들을 열두지파라고 불렀을 때 의아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스테반의 일로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했다(행 8:1-4). 사도행전 11:19에 의하면 그들의 행선지는 모두 북쪽이었다. 이른비와 늦은 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역(약 5:7)을 꼽으면 팔레스타인 내부를 생각해 할 수 있다. AD3세기에 처음으로 야고보서를 인용한 『처녀성에 관하여』(De Virginitate)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쓰여진 곳은 팔레스타인이었다. 종합하면 야고보서 최초의 독자들이 있던 곳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2) 수신자들의 환경

수신자들의 정기집회 장소는 ‘회당’(2:2)으로 일컬어진다. 야고보는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지만 전제하고 있는 것 같다. 할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유대인수신자로 생각하게 한다. 야고보서의 신자들은 매우 가난하여 보였다. 교회주변에 살면서 그들의 부를 이용하여 가난한 기독교인들을 위협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불신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렇다. 동시에 부자들은 가끔 기독교 회당에 참석했음에 틀림없다. 교회조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수신자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는

더욱 지속적인 기독교신앙생활을 위한 강한 훈계가 필요했다. 이것이 본 서신이 윤리적인 이유를 설명해 준다. 유대인 신자들의 미성숙은 실천하지도 못하는 율법에 열심을 낸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1:22이하; 2:8 이하 참조). 본 서신서의 수신자들은 유대계기독교인들이었다.

3) 야고보서에서 소개되는 기록 당시의 열두지파의 상황

가) 선생이 되기를 좋아했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3:1-4:12)

나) 부한 자들과 교회들은 가난한 자들을 멸시했다(1:10; 2:1-3)

다) 믿음과 행함이 유리된 신앙생활을 했다(2:14-26)

라) 시련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1:13)

다. 시기

1세기의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야고보의 순교를 AD 62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본 서신은 그 이전에 기록된 것이 분명하다. 야고보가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던 예루살렘교회회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서신은 주후 45-48년경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1)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언급결여

2) 유대인과 이방인의 논쟁에 대한 언급의 결여

3) 교회 체계의 원시적 특성

4) 서신의 유대적인 어조

5) 기독교인들의 상태

6) 기독교 박해의 노출

7) 신약의 다른 서신들과의 관계

8) 속사도 교부들과의 관계

9) 결론

라. 목적

1) 실제적인 행동지침서 - 부에 대한 태도, 혐의 제어, 맹세방법, 기독교인의 기도 등 야고보의 목회 경험의 발로에서 나온 목회지침서이다

2) 죽은 정통의 허위를 밝히는 교리서이다

3) 영지주의에 반대하기 위해 편찬된 서신이다

마. 문학형식(Genre)

1) 편지형식의 도덕적 교훈집, 생활 훈련집(F. O. Francis)

야고보서는 1:1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흠어져 있는 열두지파에게 문안하노라”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헬레니스틱 편지형태를 띄는 순수한 편지로 구체적인 독자의 한정된 수신인을 염두에 썼다고 볼 수도 있다.⁴⁾ 그러나 실제로 야고보서를 편지로 보는 주장은 1:1에만 국한된다. 1:1의 흠어져 있는 열두지파는 기독교가 구약의 계승자로 참 이스라엘이라는 뜻으로 야고보서는 어느 특정지역이나 민족이나 독자층이나 개인에게 보낸 글이 아닌 일반 독자에게 보낸 글이다. 저자가 다루는 주제는 어느 특정 그룹의 특수 문제나 어느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쓴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모든 교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그리스도인 생활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흠어져 있는 열두지파에게 보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집”이다. 본서는 1:1을 제외하고서는 편지형태도 없고 인사도 없고 여행계획이나 저자를

4) W. Michaelis, *Einleitung in das Neue Testament*, 3rd ed., (Bern: BEG-Verlag, 1962), 275.

위하여 기도하여 달라는 부탁도 없고, 마지막에는 편지의 결미도 없다.

2) 권면(Paraenesis)

야고보서는 자신이 질문하고 자신이 대답하는 논증기법인 디아트립(Diatribе, 문답식 논증법)으로 이루어진 권면이다. 디아트립 교수법은 이야기의 끝부분을 자르고 가상의 대화자와의 대화, 질의 응답법, 잦은 명령법(54회), 수사 의문문, 돈호법 등을 근거로 로우프(J. H. Ropes)가 제안한 교수법으로 상상적인 가상 반대자와 가상 대화를 하면서 앞뒤가 연결되지 않게 거두절미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끌어내거나(2:18f; 5:13f),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넘어갈때에 새로운 주제를 유도하는 질문을 하거나(2:14; 4:1; 5:13), 반대를 제기하기도 한다(2:8). 거리의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대화체의 어법을 쓰고, 수사학적 질문법을 쓰고(2:14, 21; 3:13; 4:1, 5), 과장된 표현법을 쓰고(1:15-17), 상상적으로 감탄하기도 하고(1:18), 그가 질문하면 대답하고 또 반대논증을 한다(1:21-25). 또는 자기 주장을 슬로건으로 정리하기도 한다(1:26). 또 돈호법(頓呼法)을 사용하여 문장 중간에 사람을 부르기도 한다(4:4)

3) 지혜문헌서

야고보서는 구약의 욥기, 잠언, 전도서 등 지혜문헌서들과 상통하는 점들이 있으며, 외경의 솔로몬의 지혜서, 벤시라의 지혜서등과 유사한 사상들이 많다. 그것은 산상수훈과 많은 교훈의 유사성을 갖고 있다. 저자는 자신을 사도나 선지자보다 교사로 소개하고 있다(3:1). 내용상 그리스도인의 실천사항을 주로 제시한 일종의 잠언집 같은 지혜문헌서이다. 차일즈에 따르면 야고보서의 전체적 구조는 지혜문학이라고 말한다. 지혜문학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권면”의 일종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본서에서 권면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권면”이라는 말 자체가 초대교회의 사도나 선지자들의 말씀“선포”에 뒤따른 “권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구약에서 “지혜전승”은 율법이나 예언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시의 형태로 참 삶, 곧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⁵⁾ 구약의 지혜문헌인 잠언은 끝없는 말씀들이 수록되었지만 서로 대조하고 시적 평행구로 쓰여져 지루하지 않지만 야고보서는 단순하고 다양한 산문이다. 잠언은 “나의 아들”에게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넘겨주는데, 야고보서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권면한다. 야고보서는 주의 강림이 가까우신데, 주께서 오시면 자유의 율법에 따라 공활을 베푸는 자에게는 공활로 심판하는 엄정한 심판을 따라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고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긴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인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어떻게 주의 오심을 대적할것인지 묻는다. 그러므로 단순히 잠언이나 격언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행함, 말, 자기 삶의 준비등 위에서 내려오는 참된 지혜를 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는 지혜전승을 따르는 지혜문학이다.

4) 설교

바클레이는 야고보서는 원래 주의 동생 야고보가 산상수훈과 비슷하게 설교한 것인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기록하였다가 모든 교회가 읽을 수 있도록 여기 저기에 약간 부연하여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말한다⁶⁾ 그러나 야고보서는 선포나 권면이 없고 108절 가운데 54번의 명령형이 나타나며 신앙이나(2:14-26) 언어(3:1-12), 시기심(3:13-4:10)등에 대하여 약간 긴 논술(essays)이나 강화(discourses)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간단하고 서로

5) B. S. Childs, *The New Testament as Canon*, 439

6) 윌리엄 바클레이, *The Letters of James and Peter*,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60). 39.

연결되지 않는 산상수훈이나 잠언과 같은 지혜의 말씀들로 연결되어 있다

가) 산상설교와의 병행구

내 용	야고보서	산상수훈
시험을 만나면 기뻐함	1:2	마 5:10-12
온전함을 요구함	1:4	마 5:48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함	1:5	마 7:7
성내는 것에 대한 경고	1:20	마 5:22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와 실천하는 자	1:22	마 7:24-27
온 율법을 지킴	2:10	마 5:19
공휼을 행함	2:13	마 5:7
화평케 함	3:18	마 5:9
세상과 벗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됨	4:4	마 6:24
겸손함	4:10	마 5:5
형제를 비방하지 않음	4:11-12	마 7:1-5
좁과 동록	5:2	마 6:19
선지들의 본보기	5:10	마 5:12
맹세하지 말라	5:12	마 5:33-37

나) 예수어록Q(마가,누가복음)과의 병행구(성종현)

내 용	야고보서	Q 자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리라	1:5	마 7:7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옴	1:17	마 7:11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1:22	마 7:24
공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휼없는 심판이 있다	2:13	마 7:2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3:12	마 7:16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4:9	눅 6:25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4:10	눅 14:11
선을 행할줄 알고도 행치아니하면 죄니라	4:17	눅 12:47
부한 자들이 울고 통곡하라	5:1	눅 6:24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후 · 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5:9	마 5:22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라	5:12	마 5:34

바. 구조

1) 병렬적 구조(박수암)

야고보서는 그다지 연관성 없어 보이는 교훈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를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다. 구약의 잠언서처럼 교훈들과 경고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서두에 전체의 주제가 제시되고 그 제시된 주제들을 차례로 설명하는 로타리식 반복구조이며, 서로 독립된 주제들을 하나의 열쇠어로서 혹은 상응하는 개념이나 사상으로 연결해나가는 ‘스카카토’스타일로 전개되어 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1:2-18에서 보여지는 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욥의 지혜로써 시험중에 인내하며 압박과 박해의 상황속에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말하기를 더디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이다. 고난중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피차 비방하지 말고 주의 섭리를 믿고 아브라함과 같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욥같이 인내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있으면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이다.

2) 반복적 구조(Rondo Structure)

내 용	I	II	III
인내	1:2-4	1:12-18	5:7-11
믿음	1:3, 6-7	1:19	1:21,22-27,2:1-13,14-26
지혜	1:5	1:19	3:13-18
말하기는 더디하라	1:19	1:26	3:1-12, 4:11-12, 5:9, 12
성내기도 더디하라	1:19	4:1-10	
기도	1:5-8	5:13-18	
섭리	1:9-11	4:13-17	
빈부	1:9-11	1:27	2:1-13,14-26, 5:1-6
시험	1:2, 12	5:13	

3) 주제어연결 구조(Staccato Style, 성종현)

이는 독립된 단락들을 어떤 주제나 주제어에 의해 연결하는 구조로서, 야고보서는 이러한 구조에 의해 배열되어 있다.

내 용	주제어 I	주제어 II
시험	1:2	1:2 ‘시련’
인내	1:3	1:3
부족함이 없음	1:4	1:5
정함이 없음	1:8	1:9-11
진리의 말씀	1:18	1:19 ‘들음’
마음에 심긴 도	1:21	1:22 ‘도’
고아와 과부	1:27	2:2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자’
경건	1:27	2:1 ‘믿음’
쉬지 아니하는 악과 죽이는 독	3:8	1:21
시기와 다툼...모든 악한 일	3:16	4:1-2
주앞에서 낮춤	4:10	4:11
이웃을 판단함	4:12	4:16

선을 행할줄 알고도 행치 아니함	4:17	5:3
도살의 날	5:5	5:7
주의 강림하심	5:8	5:9
서로 원망	5:9	5:12‘맹세함’
고난당하는 자	5:13	5:11‘옴’
사하심을 얻음	5:15	5:20‘허다한 죄를 덮음’

사. 구조에 관한 제안

1) 프랜시스(F. F. Francis)

- 가) 1:2-27 대응하는 부분들로 나누어진 긴 서문
- 나) 2:1-26 믿음과 편애
- 다) 3:1-5:6 선하고 악한 말들, 두 지혜, 다툼의 상황
- 라) 5:7-20 오만과 불의

2) 앰푸(C. B. Amphoux)

- 가) 1:1-27 시험과 소망
- 나) 2:1-26 유대교도들의 모임에서
- 다) 3:1-4:10 일상 생활
- 라) 4:11-5:20 심판과 구원

3) 데이비스(P. H. Davids)

- 가) 1:9-11, 22-25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에 관한 주제
- 나) 1:5-8, 19-21; 3:1-4:12 말의 사용에 관한 이야기
- 다) 1:2-4, 12-18; 4:13-5:6 판단과 관련된 이야기
- 라) 5:7-11, 7-20 위의 세가지 주제의 반복과 결론

4) 부가(Vouga)

- 가) 1:2-19a 시련가운데서의 인내
- 나) 1:19b-3:18 말씀에 대한 적용과 힘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반대
- 다) 4:1-5:20 세상앞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증거함

아. 개요 및 내용분석

1) 인사(1:1)

저자는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수신자들을 일반적으로 한정한다. “흠어진 열두 지파”는 전 세계에 흠어져 있는 유대인을 말하는데 유대교 교인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또는 교회가 참 이스라엘 후손으로 약속의 기업을 받는 자이므로 모든 교인을 말할 수도 있다. 서문의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서는 인사를 제외하고는 편지도 아니며 독자도 모르며, 독자에게 꼭 편지를 써야 되는 특정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닌 일반적 권면이다. “문안하노라(χαίρειν)”는 철저한 헬라식 인사로 사도행전 15:23과 23:26외에 다른곳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신학적인 면에서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는 지금 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고향에 들억간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의식을 나타낸다.

가) 시험과 시험에 대처하는 방법(1:2-4)

시험은 기쁘게 대해야 한다. 그것은 인격에 안정을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명사

“페이라스모스”(πειρασμός)는 원래 “시험”인데 같은 단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훈련시키는 “시련”으로도 쓰인다(히 12:5-13). 이것은 유대교의 개념이다. 바울도 환난이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하며(롬 5:3-5), 베드로 전서는 신앙을 불로 연단한다고 말한다(벧전 1:6-7). 야고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형제들)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 길에서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을 겪지만 현재 인내와 기쁨과 온전함으로 이겨서 장차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준비한다는 신앙을 피력하고 있다.

나) 지혜와 그것을 얻는 방법(1:5-8)

모든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믿음의 응답으로 받고 있다. 의심은 단지 불안할 뿐이다. 믿음으로 구하고,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의심없이 구해야 한다. 두 마음을 가진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같다(사 57:20; 렘 49:23).

다) 부와 그것을 얻는 방법(1:9-11)

부는 덧없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부와 상관없어야 한다. 부자와 가난한 자는 동일한 수준에 있다. 낮은 형제는 부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2:5), 참고 이기면 복이 있는데 풀이나 꽃으로 만든 시들거나 사라지는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⁷⁾을 얻을 자들이다(12).

라) 시험과 유혹의 구별(1:12-15)

시험은 인내심을 기르고 보상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다. 유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신의 악한 욕심에서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전 10:13).

마) 좋은 은사(1:16-18)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지 않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해서부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삶의 기본적 은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지에 의해 주어진다.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하고 시험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 특히 지혜를 받지 못한다. 그는 말씀을 처음 창조를 하셨듯이(창 1:26-29), 이제는 두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1:21-23).

바) 들음과 청함(1:19-27)

말씀을 듣고 받을 때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행하지 않을 위험을 경고한다. 그리고 거짓 경건과 참 경건의 차이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주어진다.

사) 차별반대(2:1-13)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주제가 다시 거론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반면에 그렇게 하시는 만큼 부자들은 압제자가 되었다. 어떤 경우든지 사랑의 지고한 법은 차별과 반대된다. 부분적인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엄격히 말해 율법전체를 어긴 것이다

아) 열매없는 믿음(2:14-26)

정통이 무기력한 결함을 노출한다. 아브라함과 라합과 같은 칭찬받는 믿음이란 행동과 연결된 것이다. 믿음은 필요한 것이지만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

자) 가르치는 자에게 필요한 자질(3:1-18)

(1) 혀를 제어함(3:1-12)

7) 의의 면류관(딤후 4:6), 영광의 면류관(벧전 5:4), 생명의 면류관(약 1:12; 계 2:10)등 3가지 종류의 면류관이 있다.

선생은 큰 책임이 따른다. 일을 시작할 때마다 실수한 말의 위험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혀는 몸의 지체중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지체이다. 혀는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길들이지 않는 혀의 치명적인 위험과 축복과 저주를 말하는 한 입술의 모순을 경고한다

(2) 참된 지혜(3:13-18)

시기와 다툼을 낳는 지혜와 좋은 열매를 맺는 지혜, 즉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비교한다. 후자는 참으로 지혜롭고 이해심있는 사람이다

차) 여러 가지 위험들(4:1-17)

(1) 인간의 정욕(4:1-10)

거짓 지혜의 최악의 표현중 하나가 정욕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툼을 일으키고 세상과 타협하는 경향에서 나타난다. 해독제는 겸손과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다

(2) 비방(4:11,12)

야고보는 남을 비판하는 보통 사람의 결점을 나무란다. 그것을 행하는 자는 율법을 비판하는 자라고 지적한다

(3) 경솔한 확신(4:13-17)

하나님의 뜻을 떠나 계획하는 어리석음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그 행위의 오만해지는 경향을 강조한다

카) 부한 압제자들에 대한 경고(5:1-6)

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재산이 적은 자들을 압제하는 기회를 삼는 자들을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은 구약의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을 상기시키며 책망한다

타) 피압제자에 대한 격려(5:7-11)

가장 필요한 성품은 인내이다. 이것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에 의해 분명해진다.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의 성품이다. 선지자들과 족장 욥이 고난중에서 어떻게 인내했는가? 인내의 진정한 기초는 주님의 공휼이다

파) 맹세에 대하여(5:12)

맹세를 함부로 하여 기독교인의 말이 모호해져서는 안된다

하) 기도의 능력(5:13-18)

기독교인이 병들면 교회의 장로가 기도하도록 분부된다. 그런 방법의 능력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호소되었던 불타는 기도에 호소한다

거) 미혹에 빠진 자를 도움(5:19-20)

다른 사람이 미혹된 길로 가는 것을 돌이키도록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각별한 칭찬과 상급이 약속된다

3. 베드로전후서

4. 요한1서

5. 요한2서

6. 요한3서

7. 유다